

# 동절기 헌혈 '뚝'...광주·전남 혈액수급 적신호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개인·단체 참여 절반 급감 방학·명절 기간 부족사태 우려...“시민 관심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광주·전남지역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겨울철에는 방학과 명절 등의 영향으로 단체·개인 참여율이 감소하는 요인이 있어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는 33만 7,83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만 6,573명, 2020년 10만 5,956명, 2021년 10만 5,304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헌혈에 참여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헌혈 참여자 수는 절반으로 급감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지역 혈액 보유량은 7.7일분으로 다행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혈액형별로는 ▲A형 8.9일분 ▲B형 6.6일분 ▲O형 6.2일분 ▲AB형 9.6일분이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적으면 '관심', 3일분

미만이면 '주의', 2일분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한다. 그러나 백신 3차 접종과 겨울 방학, 명절 시기가 겹치면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헌혈 참여율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지역 연령별 헌혈 참여율을 보면 10대와 20대가 각각 28%, 34%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기관 등 단체 헌혈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혈액 보유량

은 언제든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헌혈 참여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지역 내 헌혈 가능 인구(16-69세) 감소로 분석하고 있다. 헌혈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10-30대의 인구 감소가 혈액 보유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젊은층에 집중된 헌혈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지역은 안정적인 헌혈수급을 위해 하루 평균 600여명의 헌혈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500여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이에 광주전남혈액원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사은품 이벤트 등을 마련하며 '헌혈인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달 13일 헌혈의 날에는 광주 시내 헌혈의 집 센터(충장로, 전대용봉, 터미널) 3곳에서 RCY 단원들과 협업해 홍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콘서트와 테마 여행 등 각종 문화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특별 기념품 증정 및 프로모션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현재는 적정 수준이지만 백신 접종 시기와 방학 시즌에 다시 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 “민주당,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책임 나서야”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5일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따른 파업 사태에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과 2020년 22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지면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화주와 택배사, 소비자들과 택배노동자들이 모여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현재 자신의 수수료를 포기해가며 파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책임 있게 정리하지 않고 CJ대한통운의 갑질과 탐욕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의된 택배요금 인상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의 이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70원의 택배요금이 인상됐지만, 사측은 5,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000억원을 자신의 초과 이윤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또,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어 사회적 합의를



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5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을 방관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불이행’ 지적 “사측, 5천억 중 60% 초과이윤 챙겼다”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과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고 택배 현장을 과로가 판치는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CJ대한통운은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주 60시간 이하 노동’이라는 전제 아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며 “국토부 역시 ‘부속합의서가 표준계약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용인함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 당사자인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이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 합의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CJ대한통운지부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 인상분 배분 등을 요구하며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홍승현 기자

## 전도된 승용차에 갇힌 운전자 생명 구해 동부서 박석홍 경사, 침착·신속 대응 귀감

한 경찰관이 사고로 전도된 승용차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해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금남지구대 소속 박석홍(40·사진) 경사가 지난 달 15일 오전 1시께 교통사고로 뒤집힌 승용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했다.

당시 야간 순찰 근무 중이던 박 경사는 복귀하던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고 옆에 승용차를 발견했다.

박 경사는 차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전도된 차 내부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운전석에 갇힌 A씨는 안전벨트를 맨 채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조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박 경사는 즉시 삼단봉으로 조수석을 내려쳐 유리창을 부숴냈다.

이어 그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뺀어 A씨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끌어당겼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유리 파편에 작은 상처를 입긴 했지만, 연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박 경사는 세월호 참사,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 등 재난이 잇달았던 2014년에 소방청이 주관한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김포경찰서에 재직했던 그는 각종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대응 업무를 맡고 있었다.

박 경사는 그때 참여했던 인명구조 훈련 덕분에 이번 사고에서 침착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경사는 “이번 일로 많은 정찬을 받았는데 경찰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 남구, 군 공항 소음 보상 추진

광주 남구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149세대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

보상 기준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은 1종 구역으로, 90-95웨클은 2종 구역, 85-90웨클은 3종 구역으로 분류된다.

1인당 보상금은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 원이, 2종과 3종 구역은 각각 월 4만5,000원과 3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750만</li> <li>• 년수익 9000만</li> <li>•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li> </ul> <p>★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광주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p>	010-6670-9800	010-6670-9800
전남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p>	010-6670-9800	010-6670-9800
시외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p>	010-6670-9800	010-6670-9800